

엄지성 👍 ‘엄지척’



15일(한국시간) 터키 안탈리아의 마르단 스타디움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팀 한국과 아이슬란드의 친선경기. 엄지성(24번)이 골을 성공시키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제공>

“기회를 놓치지 않는 스타일”이라면서 자신감을 보였던 광주FC의 엄지성이 11분 만에 A매치 무대에서 날아올랐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FIFA랭킹 33위)이 15일 터키 안탈리아의 마르단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이슬란드(62위)와의 친선경기에서 5-1 승리를 거뒀다. 대승으로 기분 좋게 새해를 연 ‘벤투호’의 골퍼 레이드에는 대표팀의 2002년생 막내, 광주FC 엄지성도 함께 했다. 전원 K리그로 구성된 대표팀은 전반에만 세 골을 몰아 넣으며 화력을 과시했다. 특히 엄지성과 함께 조규성(김천), 김진규(부산), 백승호(전북) 등 무려 4명이 A매치 데뷔골을 장식하면서 든든한 ‘플랜 B’를 구축했다. 전반 15분 조규성이 한국의 공세를 알렸다. 김진규의 패스를 받은 조규성이 오른발로 선제골을

광주FC의 막내 A매치 데뷔전서 데뷔골 ... 벤투 감독 ‘눈도장’ 대한민국, 터키에서 열린 평가전에서 아이슬란드에 5-1 대승

장식했다. 전반 24분에는 조규성이 페널티킥까지 얻어냈다. 키커로 나선 권창훈(김천)의 슈팅이 골키퍼에 막혔지만 이내 추가골이 터졌다. 페널티킥을 실패했던 권창훈이 2분 뒤 주인공이 됐다. 이동경(울산)이 길게 올려준 패스를 받은 권창훈이 골키퍼를 마주하고 왼발로 슈팅을 날리면서 한국의 두 번째 골을 만들었다. 전반 29분에는 백승호가 시원한 중거리포를 날리면서 3-0을 만들었다. 후반 초반에는 한국이 아이슬란드 공세에 고전했다. 후반 8분에는 구드손에게 골도 내줬다. 하지만 후반 28분 팀의 선제골을 도왔던 김진규가 득점까지 장식했다.

이동경의 슈팅이 골키퍼 맞고 나오자 공을 잡은 조규성이 슈팅으로 연결했다. 수비수 맞고 공이 흘렀지만, 조규성이 재차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했고 골대를 갈랐다. 4-1로 앞선 후반 30분 벤투 감독이 ‘막내’를 불렀다. 송민규(전북)를 빼고 엄지성이 그라운드에 오르면서 가슴 뛰는 A매치 데뷔전을 치르게 됐다. 그리고 엄지성은 부지런히 그라운드를 누비면서 분위기를 바꿨다. 투입과 함께 코너킥을 유도하고, 매서운 원터치 패스로 선보였다. 아이슬란드 뒷공간에서 상대를 괴롭히기도 하면서 눈길을 끈 엄지성은 데뷔 11분 만에 데뷔골까지 장식했다. 이영재(김천)가 왼쪽에서 문전으로 크로스를

띄웠고, 엄지성이 훌쩍 뛰어올랐다. 174cm의 엄지성이 장신 수비수들 사이에서 헤더로 골대를 가르면서 5-1을 만들었다. ‘벤투호’는 21일 같은 장소에서 몰도바(FIFA랭킹 181위)와 두 번째 친선경기를 치른다. 대표팀 합류 전 “기회를 놓치지 않는 스타일이다. 많이 배우고 오겠다”고 각오를 밝혔던 엄지성은 기회가 오자마자 ‘원샷원킬’로 벤투 감독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단신이지만 자신의 장점인 점프력을 과시한 엄지성. 두 번째 경기에서는 자신의 또 다른 매력인 양발 슈팅과 스로잉 실력까지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아이슬란드, 몰도바와의 친선경기로 몸을 푼 대표팀 27일에는 해외파를 소집해 레바논과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 7차전을 갖고, 10회 연속 본선 진출 위업에 도전한다. <김영욱 기자 wool@kwangju.co.kr>

벤투 감독 인터뷰

“짧은 훈련에 경기력 좋아 손흥민 상태는 계속 주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파울루 벤투(사진) 감독이 아이슬란드와 친선 경기에서 5-1로 크게 이긴 결과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한국은 15일(한국시간)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아이슬란드와 친선 경기에서 전반에만 3-0으로 앞서는 등 경기 내내 상대를 압도한 끝에 5-1로 대승했다. 경기를 마친 뒤 벤투 감독은 “연초인데다 1주일 정도 훈련하고 나온 상태인데 선수들이 준비를 잘 해줘 공수에서 모두 좋은 경기력을 보였다”고 말했다. 벤투 감독은 “1주일 동안 훈련한 결과를 바탕으로 선수들이 주문한 것에 대해 반응을 잘 해줬다”며 “앞으로 더 보완할 부분이 있지만 남은 1주일 더 연습해서 21일 몰도바전과 27일 레바논 원정 등을 잘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9일 소집돼 터키로 출국했던 대표팀은 이날 아이슬란드와 경기에 이어 21일 몰도바전까지 터키 안탈리아에서 치르고 25일 레바논으로 이동한다. 27일 레바논을 상대로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 7차전을 벌이고, 2월 1일에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시리아와 8차전 원정에 나선다. 현재 손흥민(토트넘)과 황희찬(울버햄프턴)이 부상으로 인해 레바논, 시리아전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에 대해 벤투 감독은 “오늘 그 자리에서 편 송민규(전북)나 권창훈(김천)은 우리 팀에서 함께 한 지 꽤 되기 때문에 우리 팀의 스타일을 잘 알고 있다”고 이날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을 칭찬했다. 이어 그는 “손흥민이나 황희찬은 우리 팀에 중요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일단 합류가 가능한지 다음 주까지 상황을 살펴보고, 어렵다면 다른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21일로 예정된 몰도바와 평가전에 오늘 경기와 비교해 선발 출전 선수 등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물음에는 “일단 두고 봐야 한다”며 “앞으로 1주일 남았기 때문에 그 기간 훈련을 통해 다음 경기 출전 선수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조코비치

호주오픈 테니스 노백신 노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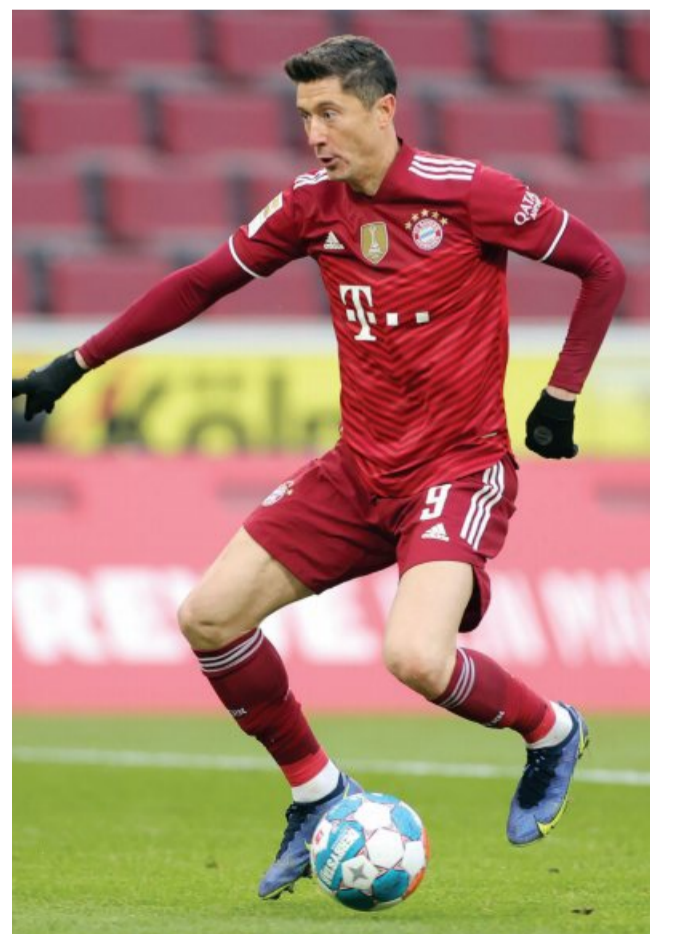
조코비치 끝내 출전 무산

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코비치는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고 멜버른 구금 시설에 머물다가 국외로 추방되는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호주 현행법상 비자 취소 조치가 추방되면 앞으로 3년간 호주 입국이 금지되기 때문에 조코비치는 앞으로 3년간 호주에서 열리는 대회에는 출전할 길이 막힐 수 있다. 조코비치는 17일 개막하는 호주오픈에서 대회 4연패와, 사상 최초 21번째 메이저 대회 우승 기록에 도전하려던 터였다. 조코비치는 지난 5일 호주에 도착했으나, 호주 정부는 그 이틀 날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그의 입국 비자를 취소했다. 조코비치는 이에 불복, 호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0일 승소하면서 조코비치가 호주오픈에 출전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호주 정부는 14일 이민부 장관 직권으로 그의 입국 비자를 다시 취소했다. 호주 이민부 장관은 “우리 사회의 건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조코비치의 비자를 이민부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취소한다”면서 “이것은 공익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레반도프스키, 분데스리가가 300골 대기록

게르트 뮐러 365골 기록에 도전

‘득점 기계’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34·바이에른 뮌헨)가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에서 개인 통산 300골을 달성하며 ‘레전드’ 게르트 뮐러의 기록에 또 한발 다가섰다. 레반도프스키는 15일(현지시간) 열린 뮌헨과 2021-2022 분데스리가 19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헤트트릭을 완성해 뮌헨의 4-0 완승을 이끌었다. 이날 세 골을 몰아친 그는 분데스리가 역사상 두 번째로 통산 300골을 넣은 선수가 됐다. 앞서 분데스리가에서 300골 이상을 넣은 건 게르트 뮐러(365골)가 유일했는데, 레반도프스키가 1976년 이후 46년 만에 뮐러의 뒤를 이어 이 기록을 썼다. 레반도프스키는 꾸준히 뮐러의 기록에 도전하고 있다. 그는 2020-2021시즌 정규리그에서 41골을 터뜨려 뮐러의 분데스리가 한 시즌 최다 골 기록(40골·1971-1972시즌)을 49년 만에 경신한 바 있다. 또 2021시즌 한 해 동안 리그에서 43골을 폭발해 뮐러가 보유하고 있던 분데스리가 1년 최다 골 기록(42골·1972년)도 49년 만에 깨뜨렸다. 레반도프스키는 뮌헨전에서 전반 9분 토마스 뮐러의 패스를 선제 결승골로 연결했다. 2-0으로 앞서 후반 17분에는 리오이 자네가 찢러준 패스를 받아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왼발로 마무리했고, 12분 뒤 또 한번 자네의 도움을 받아 셋기포를 터뜨렸다. 올 시즌 21~23호 골을 연달아 넣은 레반도프스키는 파트리크 시크(18골·레버쿠젠)를 여유롭게 따돌리며 리그 득점 1위를 지켰다. 한편 뮌헨은 이날까지 분데스리가 66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레반도프스키

이는 구단 최다였던 정규리그 65경기 연속 득점 기록(2018년 2월~2020년 2월)을 넘어선 것으로 분데스리가 신기록이기도 하다. <연합뉴스>

남자 테니스 세계 랭킹 1위 노바크 조코비치(35·세르비아)의 호주 오픈 출전이 결국 무산됐다. 16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호주연방법원 재판부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호주 정부가 입국 비자를 취소한 결정에 불복해 조코비치 측이 제기한 소송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판결을 내린 이유를 추후에 공개할 예정이